

이지상의 '여행과 삶'



국민소득 낮지만 행복지수 높은 부탄

모든 학비가 무료이며 병원비도 무료인 나라. 전 국토가 금연지대로 담배를 피우면 징역을 살아야 하는 나라. 1999년에 최초로 텔레비전 방송국이 설립된 나라. 관리들은 전통 복장인 '고'(남자)와 '키라'(여자)를 입어야 하고 매달 한 번씩 전통 축제를 벌이며 민족문화를 고취시키는 나라. 현재 국민소득 약 3천 달러도 안 되지만 유럽의 신경재 재단(NEF)의 2010년도 조사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뽑힌 나라.

바로 그 나라인 부탄을 두 달 전에 5박 6일 동안 여행했다.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약 3주일간 인도의 시킴 지방과 함께 여행했는데, 대개의 도시가 해발 2천~3천 미터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 인도 뉴델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박도그라로 간 뒤, 지프 차를 타고 1박 2일 동안 국경 도시 푼츨링을 거쳐 부탄의 수도 팀푸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과연 부탄은 이상향일까? 여행자들이 쓴 여행기와 매스컴에 보도된 부탄은 세계의 흐름과 거리가 먼 지상낙원처럼 묘사되기 일쑤다. 결론적으로 과거의 부탄은 그랬다. 하지만 현재의 부탄은 세계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물론 부탄이 실망스럽지는 않았다. 부탄의 첫 인상은 청결과 아름다운 자연이었다. 어딜 가나 밥에 의해 규제된 5층 미만의 건물들은 하얀 벽과 정교한 장식으로 아름다웠고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은 단정하고 기품이 있어 보였다.

수도 팀푸와 과거의 전통이 어린 푸나카, 국제공항이 있는 파로 그리고 불자가 계속 등은 아슬아슬한 절벽 길을 통해 가야 했지만, 히말라야 산맥과 들판은 온통 푸른색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경기는 얼마나 깨끗한지 가는 곳마다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스위스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또한 독특한 부탄 식의 불교 사원과 문화를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부탄의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는 17세기다. 종교 지도자인 사브드롱 나양 남갈이 모국인 티베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부탄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한때 전성기를 맞았지만 차차 분열되다가 20세기 초에 왕정을 확립하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의 도움을 받는다.

1대 왕은 영국과의 협력 하에, 2대 왕은 인도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나라의 기틀을 잡고 3대 왕 지그메 도르지 왕축(1929-1972)은 영국과 인도를 제외한 나라들과는 거리를 두는 외교 정책을 취하지만 농노제를 폐기하고 농민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며, 입법기관·경찰·군대 등을 만들며 근대화를 이룩한다. 정치를 잘 해 나가던 3대 왕이 40대 중반에 갑자기 세상을 뜨자 그의 젊은 아들 지그메 싱게 왕축(1972년-현재)이 4대 왕이 된다.

그가 내세운 것은 발전이 아닌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이란 개념이었다.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혹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의 발전을 추구하지 않고, 국민총행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취한다.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사회 경제의 발전, 히말라야 자연환경 보호, 부탄의 유형·무형 문화재의 보호, 좋은 통치 등 4대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총행복 위원회(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를 만들어서 모든 국가 정책과 민간 분야의 사업들이 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부탄은 전 국토 녹지율이 68%로 어딜 가나 푸르고, 부탄 인구의 90%인 농민이 자급자족하며,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국내에서 쓰고 남은 85%를 인도에 수출한다. 또한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1인당 하루 체류비 200달러에서 250달러를 받음으로써 관광객 수를 조절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4대 왕은 아들 5대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 민주화를 이루는 한편 입헌군주국을 만드는 개혁 정책을 취한다. 하지만 이런 물결 속에서도 빈부 격차와 농업 격차가 생기고 이혼율·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닌 행복이란 개념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부탄은 이 지구상에서 매우 희귀하고 소중한 나라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여행작가>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說

여당도 '백남기 농민 사태 특검' 받아들여야

지난해 서울 도심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입원 중 숨진 보상 출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 규명이 새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백 씨의 죽음을 둘러싼 시비는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논란은 그가 치료를 받던 서울대병원의 주치의가 사망 진단서에 '병사'(病死)로 기록하면서 촉발됐다. 즉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머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 왔지만 이후 합병증으로 운명해 최종 사인은 병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선행 원인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쓴 물대포 때문에 백 씨가 아스팔트로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이 다른 병을 부른 주원인인 만큼 '외인사'(外因死)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판단이 합당하다

는 견해가 많다. 이렇 경우엔 사고 발생 시간을 분 단위로 작성하고, 당시 상황도 세세하게 기재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밝히고 위법시 처벌해야 한다.

더욱이 진단서 논란과 관련 구성된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의사 출신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외인사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치의의 병사 적시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지만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백 씨 가족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시신 부검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의료진이 감광질량하고 당국은 공권력 테두리에서만 미적거리는 사이 결국 특검안이 발의됐다. 이로써 김재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안 사태에 이어 또 다른 파행으로 국정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따라서 한 억울한 죽음의 진상 규명은 물론 국정차질 다른 병을 부른 주원인인 만큼 '외인사'(外因死)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판단이 합당하다

여전히 생활고에 허덕이는 지역 예술인들

광주 지역 예술인 10명 중 6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중 5명은 생계유지를 위해 예술 활동 이외의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연구원 민인철 책임연구원이 광주 지역 예술인 219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광주 예술인 실태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3명(29.7%)의 연간 소득이 999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률 역시 40.6%에 그쳤다.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직업 특성상 정규직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술계 입문 후 1년 이상 예술 활동을 하지 않은 경력 단절 경험률은 50.2%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2%가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생계를 위해 부득이 다른 생업에 종사했다는 얘기다.

또한 지역 예술인들의 개인 창작 공

간 소유율도 41.1%에 불과했다. 소유 형태는 임대·월세 51.1%, 자가 23.3%, 임대·전세 20.0%, 무상임대 5.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작업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예술인들이 생활고를 이유로 창작욕구를 묻어아 하는 건 불행한 일이다. 정부도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2011년 생계를 잊지 못해 자살한 시나리오 작가 최은은 씨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낮은 것은 직업 특성상 정규직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술계 입문 후 1년 이상 예술 활동을 하지 않은 경력 단절 경험률은 50.2%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2%가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생계를 위해 부득이 다른 생업에 종사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예술인 복지법 보완은 물론 예술인 사회적 일자리 정책 확대 등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것은 곧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커피한잔



조경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는 저것이 이 모양으로 되어 버릴 줄은 몰랐다. 구 전남도청 일대에 드넓게 자리한 아시아문화전당 말이다. 지난해 11월 찬바람 속 개관식에 대통령이 불참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미 불길했다. 이제 개관 1년을 눈앞에 둔 지금, 저 널브러진 공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수가 없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이제껏 아시아 사람 모두가 주목할 만한 어떤 공연이나 전시나 이벤트가 벌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아시아 사람들은커녕 대한민국 타 시도의 문화 애호가들이 일부러 표를 구입하고 숙소를 예약하며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에 몰려온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저것을 '아시아문화전당'이라 부를 만한 그 어떤 일도 상황도 분위기도 없다. 저런 거대한 재앙이다.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무려 24년

아시아문화전당은 거대한 재앙이다

의 노정이다. 출발은 1993년 YS(김영삼 대통령)였다. 그는 집권 첫해 5·13 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5·18 최후의 항쟁지인 전남도청을 5·18 기념관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라도 사람들은 환호했다.

전남도청을 옮기는 힘든 작업은 DJ(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뤄졌다. 옛 도청과 주변 일대를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노무현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 2002년 나온 이 구상에 광주 시민들은 가슴 불꽃이 쏘아 올랐다. 2004년에는 총리급이 위원장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위원회가 국가기공로 만들어졌다. 여가까지 12년 걸렸다.

다음 12년은 만신창이다. 2005년 전당 설계 국제공모에서 현재 모습의 전당 설계안이 뽑히자, 멋진 외관의 지상건물을 기대했던 시민들을 중심으로 랜드마크 논란이 벌어졌다. 무등산 조망을 살리고 핵심 건물인 전남도청 본관을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세련된 설계에 공감하지 못하는 바 아니냐, 어디 하나 내세울 만한 건축물이 없는 초라한 도시에 아름다운 문화예술 랜드마크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정서도 무지르기 어려웠다. 그해 겨울 전당은 착공식을 하긴 했으나 이 논란으로

2년이 그냥 흘러갔다.

가까스로 논란은 잦아들었지만 이젠 도청 별관 보존 논란이 벌어진다. 2008년 여름 시작된 5·18 단체들의 보존 요구 농성으로 2010년 12월 '부분 보존'으로 결론 날 때까지 2년 반을 끈다. 이 시기 "국가사업이 간여하기 어렵다"며 팔짱만 끼고 광주광역시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했다.

광주 현저에서의 옥신각신으로 공사는 한없이 더디 작공 9년이 되어서야 전당은 겨우 외관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번엔 운영 주체를 둘러싼 법 개정 논란이 벌어졌다. 2014년 겨울부터 1년하고도 석 달 동안 벌어진 이 논쟁은 전당의 앞날에 끼여 있는 먹구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최초 취지대로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을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느냐, 전당이 자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떠맡느냐를 임의로 해야 하는 논쟁이었다. 가까스로 5년간 국가가 맡아 운영하게 됐지만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한국의 문화수도라 키운다는 초기의 화려한 구상이 이미 남은 지폐처럼 빛이 바래 버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집회에서 "아시아 전당만 갖고 문화중심도시가 되겠습니까?"라며 광주를 7대 문화권으로 나눠 몇조 원의 예산을 퍼붓겠다고 열변을 토

하던 게 그것과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문화전당 같은 대표적인 열세 남비사업' '정략적으로(법안)을'박달하는 난센스러운 일'로까지 깎아내려 버렸다. 이리나 어떤 철 모르는 문화부장이 아시아문화전당을 추켜들겠는가. 전당장도 아직 뽑아주지 않고 있잖나.

박 대통령은 호남이 미울 것이다. 내심 광주라면 꼭도 보기 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다. 경제개발에서 상대적으로 뒤진 호남에 대한 배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렸던 도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 사업이다.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손쉽게 뒤집을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저 쓸씨년스러운 금남로 아시아 전당 주변엔 벌써 낙엽들이 흩날린다. 무슨 이름도 생소하고 호기심도 일지 않을 공연인가 전시인가가 깃발 몇 개로 나뉘었다.

정권의 호남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아시아문화전당.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5년이 지나 그나마도 지원이 끊길 텐데, 그런 운영비 마련을 위해 등산복 '뽕처리' 매장이 들어서는 상황이 뻔한 일 아닌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이름이 아깝다.

기고

섬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김준 광주전남연구원 박사

요즘 제주이민이 인기가. 여행에 그치지 않고 '제주살이'를 선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어디 버리는 것이 쓰레기뿐이라. 언어, 음식, 주거 등 유행의 폭력들이 난무하다. 피해를 섬과 바다 그리고 바다 건너 도시민들에게도 미친다. 그리고 방문객 수로 성패를 가늠하는 탓에 더 많은 숙박과 주거, 더 넓은 도로와 비행장 개발로 이어진다. 이들에게 섬과 바다의 수용력은 안중에도 없다. 물리적, 생태적, 사회적 수용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제주만이 아니다. 섬이라는 공간에서 수용력은 다른 이

런 기준보다 증시되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되새겨야 할 것이 전통문화 생태지원의 이용방식이다.

오래전엔 일본 나가사키현 히라도(平戸)라는 섬을 방문했을 때다. 이곳은 15세기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의 해양문화와 접촉이 많았던 섬이다. 이곳저곳을 거닐어다 나이가 지긋한 어부를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어린 학생들이 전통어업을 하는 사진을 발견했다. 고기잡이와 체험 중 어느 것이 수익이 더 나은지 몰랐다. 어부는 주저하지 않고 고기잡이가 낚시 배 더 소득이 된다고 했다. 그럼 고기잡이를 하지 왜 체험을 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어부의 대답이다.

섬사람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젊은 사람은 섬을 떠나는데 누가 섬을 기억하겠어요. 지금 당장은 소득이 될지 모르지만 섬과 어촌이 지속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기억해줘야 하잖아요. 그들이 기억하면 우리 어촌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어부책임이거든요.

네덜란드 섬마을도 고령화를 피해갈 수 없다. 아멜란드는 3500여 명이 사는 작은 섬이다. 방문객은 일 년에 55만여 명에 이른다. 한때 1800명까지 인구가 줄었다. 옛날에 이 섬에 모두 8개의 풍차가 있었다. 밀과 호밀을 빻는 전통 방앗간이다. 물에 있는 큰 밀밭과 경쟁하듯 어려워 문을 닫았고 젊은 사람은 공부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서 섬을 떠났다.

더 이상 섬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섬에 방문객센터와 박물관을 만들었다. 모두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두 개 풍차도 복원해 가동을 했다. 풍차라면 눈 감고도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할머니가 엔지니어로 참여하고 어렸을 때 떠던 빵을 만들었다.

방어를 쫓는 날이면 마을 노인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 이때 세 개조로 나누어 많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여 년 전까지 해운 일이나 설명도 연습도 필요 없다. 방앗간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

으니 얼마나 많은 사연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겠는가. 삶이 스토리다. 여행객을 위하여 옛날 사용했던 도구와 사진과 이야기를 전시한 아담한 박물관도 곁들였다. 빵, 겨자 등은 직접 풍차 안에서 만들고 주민들은 유기농으로 밀농사를 짓는다. 여행객에게 기념품으로 인기 짱이다. 찾는 사람이 많으니 밀밭 등 풍식을 재배하는 곳이 늘어났다. 풍차를 하나 돌렸을 뿐인데 노인 일자리가 생기고 찾는 여행객이 늘었다. 이들에 팔 빵과 겨자를 만들기 위해 작은 공장과 판매장도 만들었다. 덕분에 또 일자리가 늘었다. 방문객들은 맛을 보고 만족하니 다른 농산물도 찾는다. 이곳에서 질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가져다 매장에서 팔기도 한다.

요란하게 치유나 힐링이라는 수식어를 요란하게 붙일 필요도 없다. 생태가 전통이며 문화가 생태가 된다.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생태와 문화는 필요조건이고 주민참여는 충분조건이다. 전통문화가 복원되니 생태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섬살이에 생기가 돈다.

**無 等 鼓**

꼭 외국의 어느 작은 공원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행은 중고등학교 시절 참고서 표지에서 보았던 풍경이 떠오른다고 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 가톨릭평생교육원 건물 뒤쪽을 돌아다니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느티나무, 그리고 꽃무릇과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풍경이 나타났다. 절로 '섬'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인근엔 수녀님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북카페도 자리하고 있다. 언젠가 국립광주박물관

추서 연휴 전날 잔디밭에 돛자리를 깔고 앉았다.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온 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 한 마디씩 했다. "참 좋다." "어디 멀리 나들이 갈 필요 있겠나?"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하늘마당에서는 색다른 행사가 열린다. 문화 기획 그룹 '양념쳐 스튜디오'가 진행하는 '돛자리 프로젝트-테이크 아웃 예술가'다. 부스에서 무료로 나눠 주는 돛자리를 받아 공원에 자리를 잡은 후 2~5개 돛자리에서 예술가를 초청한 현장으로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준다. 커피처럼, 예술가 아이언으로 음악을 들었던 기억도 떠오른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외국 여행을 하며 가장 부러워하는 풍경 중 하나가 푸른 잔디밭과 공원에서 망중한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요즘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이다. 눈이 시릴 정도로 푸른 잔디밭에 삼삼오오 앉아 있는 이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하늘마당은 푸른 잔디밭과 파란 하늘이 보이는 푸른 잔디밭과 파란 하늘이 보이는 낮에도 좋지만 해질 녘이 나 밤이 되면 또 다른 매력을 풍긴다.

**'하늘마당' 소풍**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程厚植</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b>광고문의 062-227-9600</b>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